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합시다
ARS 060-700-0048
불교신문 법보시 후원(한통당 5,000원)

佛敎新聞

대승투어
daeseungtour
신심깊은 불자들의 여행사
여법한 순례
품격있는 여행
☎ 1577-0206 www.대승투어.com

1960년 1월 1일 창간 주2회 발행
불기 2557년 10월 2일 (2013년 / 단기 4346년 음력 8월28일) bulgyo.com 대표전화 (02)730-4488 제2949호 수

"위로와 경의, 화해와 상생, 미래와 희망을 위한 축제" 한국정전 60주년을 기념하는 한반도평화대회가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UN이 정한 세계평화의 날인 지난 9월27일. 한반도평화대회 운영위원회(봉행위원장 자승스님, 상임위원장 수불스님) 주관으로 5만여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이애주 교수의 승무와 명고, 명종으로 시작을 알렸다.

한반도 평화대회가 UN 평화의날인 지난 9월27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거행됐다. 사부대중 5만명은 이날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남과 북의 화해와 공존을 향한 불교계의 뜨거운 염원을 담아 평화를 노래했다. 사진은 서민스타 폴포츠와 다문화가정 어린이들로 구성된 레인보우 합창단의 개막공연. 부산=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모든 생명을 위한 위로의 축제"

정전 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사부대중 5만여 명 동참

"후손에 전할 최고 가치는 한반도 평화" 부산선언 발표

룸비니에서 이운한 평화의 불 제막을 시작으로 열린 첫 개막공연은 꿈을 이룬 서민스타, 폴포츠가 열었다. 폴포츠는 다문화가정 어린이로 구성된 레인보우 합창단과 함께 가곡 '그리운 금강산'을 열창하며 본 행사의 메시지를 대중에게 음악으로 전했다.

한반도평화대회는 공연과 불교의식을 혼합해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진제 종정예하는 이날 "흐르는 물에 떨어진 꽃은 어느 곳에 돌아감인고. 한반도에 복사꽃 만발하니 즐거운 봄이로다(流水洛花歸何處 海東桃源夷悅春)"는 법어를 내렸다. 봉행위원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평화의 선언을 이어갔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봉행사에서 "인류가 추구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는 평화주의와 인간과 환경의 존중이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단 한 마디의 이별도 없이 쓰러져간 무수한 인류에 대한 책임과 보상은 그 어떤 합리화도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며 "살생을 자해하는 전쟁은 근절돼야 한다. 오늘 대회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넘어 지구촌 평화선언으로 전쟁없는 세상을 구현하는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법문을 했다.

인순이, 바비킴, 이선희 등 국내 정상급 가수들의 공연과 가야금 명장 황병기 씨 등의 공연이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수놓은 가운데 사부대중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부산선언'을 발표했다.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은 "1950년 6월25일부터 3년 동안 치러진 한국전쟁과 이후 60년 동안 지속된 정전체제가 남긴 것은 남북 간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또다른 분쟁과 살상, 서로를 향한 분노였다. 이제 우리는 지난 날을 대오각성하고 위로와 경의, 화해와 상생, 미래와 희망이라는 인류 번영의 꽃을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에 만개시켜야 한다. 남북한 지도자가 서로 만나 화해와 상생을 논의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가 후손에게 넘겨주어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선언했다.

전국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치러진 이날 법회는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협주로 아리랑 환상곡 공연으로 절정에 달했다. 회향은 이애주 교수의 살풀이와 천도재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오전10시 부산 UN기념공원에서는 2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위령재가 엄숙히 봉행됐다.

▶관련기사 6~7면

부산=안직수 기자 jsahn@ibulgyo.com

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채 열흘도 남지 않았다. 사실상 추대 형식이었던 33대 총무원장 선거와는 달리 치열한 경선 분위기로 전개되는 상황이다. 현직 총무원장 스님이 재임에 도전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그만큼 현 총무원 집행부의 단호한 중립과 엄정한 감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난 9월24일 수석 부장인 총무부장 종훈스님 〈사진〉을 만나 선거중립의 의지와 33대 집행부에 대한 평가를 들었다.

"총무원은 권력기관 아닌 '종무행정 서비스' 기관"

■ '선거중립' 중책 맡은 총무부장 종훈스님

스님은 "과거 어느 종책모임에도 속하지 않고 철저히 중립을 지켰던 자신을 믿어 달라"고 역설했다.

종훈스님은 33대 집행부의 임기가 두 달 남짓 남은 지난 9월6일 총무부장에 임명됐다. "어느 후보가 총무원장에 당선되든 차기 집행부는 새로운 진용으로 짜일 것"이라며 '시한부' 부장임을 자처했다.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화두가 투명한 선거관리이다 보니 걱정도 고심도 많다. 임명장을 받은 직후 종무원들을 불러 중립과 원칙을 거듭 주문했다. "집행부는 출마한 스님들을 동등하게 보호하고 똑같이 지원하고 불편한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게 의무"라고 말했다. 아울러 총무원장 자승스님 스스로도 종무회의에 선거와 관련된 안건을 올리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제척사유 논란이 일어 자칫 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사안은 다음 집행부에 넘기고 종무회의를 최소화하자는 기조도 세웠다.

> "
> 질서유지는 호법부
> 행정지원은 총무부
>
> 투명한 선거관리 '최선'
>
> 출마 후보 동등하게
> 보호하고 지원할 것
> "

당연히 어느 후보의 종책발표 자리에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만 그래도 노심초사다. 스님은 "선거업무는 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이지만 질서 유지는 호법부가, 행정지원은 총무부가 맡는다"며 "총무원이 최대한 공평무사하게 처리하려 해도 누군가는 흡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염려했다. 다만 "3선의 중앙종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어느 종책모임에도 몸담지 않았던 지난 행보를 스님들이 잘 알 것"이라며 인간적인 신뢰를 당부했다. "이른바 '무당파'로 일하면서 불이익도 많이 받았지만, 영입 제의를 다 뿌리쳤다"며 이것이 종단의 대사(大事) 앞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33대 집행부의 평가에 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며 말을 아꼈다. 단 "종단 쇄신 노력과 한국불교 세계화 시도, 중앙 권한의 교구 이양에 대해선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임기 초부터 야심차게 전개한 자성과 쇄신 결사는 진의가 왜곡돼 대중의 폭 넓은 지지를 얻지 못한 점이 한계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스님은 "총무원은 종도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종무행정 서비스 기관"이라며 "어느 스님이 총무원장이 되더라도 불교계 안팎과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해인사 일대 '팔만대장경 축제' 개막 5면

새 국사편찬위원장은 기독교 예찬론자 '논란'

반대 여론 확산

역사학계의 대표적인 '이승만 예찬론자'인 유영익 한동대 석좌교수가 새 국사편찬위원장에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23일 유영익 교수를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특히 유 교수는 그동안 발표한 글을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인 통치자였던 이승만 대통령 정책에 힘입어 기독교 정권을 창출했다"고 평가하는 등 특정종교 편향적 인식을 드러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 역사학계는 물론, 야당 의원들이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내정을 철회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우리나라 역사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으로 위원장이 어느 공직보다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이같은 여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면에 계속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社告

2014 불교신문 신춘문예 공모

불교신문은 불교문학 신예작가 등용문인 '2014 불교신문 신춘문예'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한국불교 문단에서 수많은 문인을 배출해 온 역사와 전통의 불교신문 신춘문예에 불교문학에 관심있는 신진작가들의 응모를 기대합니다.

- 응 모 기 간 : 2013년 11월 11일(월) ~ 12월 11일(수)까지
- 응 모 대 상 : 불교문학에 관심이 깊은 신진작가
- 공 모 분 야 : -단편소설 부문(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동화 부문(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시·시조 부문(5편, 5편이상은 접수받지 않습니다)
- 상 금 : -단편소설 600만원
  -동화 400만원
  -시·시조 400만원
  * 당선작은 각 분야에서 1편을 선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당선작 상금의 반액을 지급하는 가작가작 선정
  * 관련법에 의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임
- 당선작발표 : 2014년 1월 1일 신년특집호 (당선자에 한해 개별통보)
-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전법회관 5층 불교신문사 신춘문예담당

- 유의사항
  1. 겉봉투에 신춘문예 현상공모작품(응모분야포함)임을 명시해주십시오.
  2. 기 발표 원고 및 표절, 타 신문이나 잡지에 중복 응모된 작품임이 밝혀지면 당선이 취소됩니다.
  3. 마감일 18시 이전 도착분 작품에 한하며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수상작에 대한 판권은 본사가 소유합니다.
  5. 작품 맨 첫장에 작품과 별도로 응모분야, 인적사항(본명, 나이, 주소, 연락처)을 기입해 주십시오. (작품내용 안에 인적사항 명기하면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6. 우편접수와 내방접수만 가능합니다. 단, 해외에서 응모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인터넷 접수를 받습니다. (skykim2000@ibulgyo.com)
- 문의 : (02)730-4488(신춘문예 담당)

불교신문사

불광 창립 39주년 기념 및 불광법당 준공법회

10월 13일(일)
오전 10시 30분, 신축 불광법당

2년전 불광의 불자들은 '제2의 불광운동'이라는 원력을 세워 불광법당을 새로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불광이 세상에 나툰 39주년을 맞이하여 대덕 스님들과 불자님들을 모시고 또 다른 걸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불광이 시작하는 제2의 출발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국제학술포럼 「현대사회의 위기와 종교공동체의 역할」 10월 19(토) ~ 20일(일), 신축 불광법당

첫째 날(19일) 오후 1시 30분 ~ 6시, 사회 조은수(서울대)
- 틱낫한 스님과 조화롭고 깨어있는 수행공동체, 플럼빌리지 틱찬팝캄(플럼빌리지 아시아생활불교연구소 소장)
- 생태적 기업과 나눔의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아소케 공동체 피쿨 와니차피차트(태국 송클라 국제불교대학)
- 퀘이커 공동체 펜들힐의 정신: 신의 임재와 세상의 치유 스티븐 A. 스미스(클레어몬트 매케나대학 명예교수)
- 떼제 공동체와 젊은이들 희망과 의미를 찾아서 앤써니 수사(서강대 명예교수)

둘째 날(20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5시 20분, 사회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 현대사회에서 불교의 역할- 승가의 현대적 모델을 위한 모색 조성택(고려대 교수)
- 한국의 불교공동체와 불교의 미래 유정길(전 에코붓다 대표)
- 성운대사의 인간불교 이념과 특징 먀오광(불광산사 국제부장)
- 승가와 재가의 평등을 지향하는 불광산사와 불광회 먀오판(불광산사 인간불교연구소 연구원)
- 승가와 재가가 함께 만드는 세계적 수행 공동체 마하시 명상센터 담마나나(마하시 명상센터 국제불교포교학교 교수)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불광법회 02-413-6060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60-1
www.bulkwangsa.org